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다른 죽음, 이미 내 안에 있는 답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것이 나의 주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수업 시작 전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어르신들께 빼놓지 않고 꼭 여쭙는 것이 있다. 보통 사람의 한평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사계절의 어느 때에 와 계신 것 같으냐고. 겨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아직 마음은 이팔청춘이니까 그야 물론 봄이지 하며 웃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가을이라고 답하신 어느 분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다. “죽어 땅에 묻히면 그 때가 겨울이지!”

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중년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옮겨가는 인생의 길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그런데 한 가지,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진대 그럼 인생의 겨울 다음에도 봄이 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봄이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 인생은 자연의 흐름과 달리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로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것일까. 사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 속에 인간의 운명이며 숙명인 죽음이 커다란 의문부호와 함께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독서목록'에서 '죽음'을 검색어로 해 세 권의 책을 꺼내든다.

《빛, 색깔, 공기-죽음을 사이에 둔 두 신학자의 대화》는 아들이 쓴 아버지의 병상일지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두 신학자가 고통과 죽음, 부활, 종말 등 기독교의 신학적 주제들을 놓고 나눈 이야기들의 기록이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다룰 때 지나칠 정도로 이곳

에 남은 사람들에게 집중해 그들을 껴안고 위로하다보니, 죽음 이후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삶과 죽음 독서모임'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보면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목사에게, 막상 위중한 병이 닥치고 그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면 남다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말기 간암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환자인 아버지 자신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이어서 가족들이 인정하게 된다.

이 책이 내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인지를 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죽음을 결코 미화하지 않고 죽음 자체가 가지는 힘과 실체를 드러내는 성서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비교적 쉽게 풀어나간다는 점이였다. 또한 가지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였다. 환자는 어려운 투병기간 동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껏



《만남, 죽음과의 만남》 정진홍 지음 | 궁리 | 310쪽 | 값 13,000원

《편안한 죽음》 시몬느 드 보부아르 지음 | 함유선 옮김 | 아침나라 | 256쪽 | 값 9,000원



만남, 죽음과의 만남
정진홍

하며, 심지어는 구술로 장례식의 설교문까지 직접 작성한다.

세상 떠나기 보름 전쯤, 환자는 결코 안락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노라며 링거 주사를 뽑아달라고 부탁한다. 의사나 가족들이 죽음의 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현실에서, 나는 이분이 '리빙 윌(Living Will)'의 개념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빙 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을 권리를,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선언하고 서명해 두는 것'을 말한다. 물론 '리빙 윌'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순간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의연한 아버지와 어렵지만 기꺼이 아버지의 죽음의 전 과정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가족들에게서 나는 '죽음을 함께 살아낸' 가족들의 참 모습을 발견한다.

《노년(La Vieillesse)》이라는 뛰어난 책으로 내게 노년학의 깊은 매력을 일깨워 준 시몬느 드 보부아르. 그가 프랑스에서 《노년》을 발간한 것은 1970년이었고, 그 몇 년 전인 1964년에 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투병과 임종을 다룬 <아주 편안한 죽음>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편안한 죽음》으로 소개되었다. 시몬느의 어머니는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치료중에 악성종양이 소장을 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기약이 없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77세 꼬부랑 할머니인 엄마를 바라보는 55세의 딸. 어머니가 머물러 있는 고통과 죽음의 경계에 함께 서서, 딸은 슬픔과 연민을 넘어 인간 누구

에게나 예비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이 아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늘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모든 걸치레를 벗어 버리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좋아하지 않고 친하지 않았던 모녀는 마지막 병상에서 서로 외면하고 살았던 오랜 세월의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불화하는 어머니와 딸, 혹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닳아서 싫고, 달라서 싫다고 한다. 노인복지를 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유난히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던 부모, 자식이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씻으라고, 이 역시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며 선물일까. 시몬느 역시 말년의 어머니를 피하고 모른 척해 온 죄스러움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낀다.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본 의사와 간호사들이 딸에게 마지막 모습을 전한다. '촛불이 꺼지듯,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경험과 실제체험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어머니의 마지막을 같이 하고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시몬느는 사람 한평생의 마지막 가는 길과 노년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는 죽음으로 또 한 번 딸의 눈을 열어 준 것. 《노년》이라는 위대한 책에는 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깊은 만남이 스며 있으리라. 어머니는, 아니 부모는 마지막까지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열쇠까지 손에 쥐어주고 떠나가신다.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 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 (<http://cafe.daum.net/gerontology>) 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중이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여성신문에 〈유경의 녹색 노년〉을 연재하고 있으며, 같은 제목으로 SBS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 마산 MBC-FM '가요응접실' 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서해문집, 2003)가 있다.

앞의 두 책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경험한 고통과 죽음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 간 것이라면, 《만남, 죽음과의 만남》은 그 모든 경험의 단계를 넘어 죽음 자체를 논하고 있다. 1994년 1년 동안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주관한 저자의 강의녹음을 풀어, 1995년 '죽음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다른 곳에서 펴냈던 것을 지난해 다시 손질해서 내놓은 것이다. 제목을 수정하고 사이에 사진을 넣고 문장을 다듬었을 뿐, 차례와 내용은 동일하다. 강의내용을 구어체로 풀어놓아 따라가기는 쉽지만, 읽기의 즐거움이 좀 줄어들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는 죽음을 우리들 삶의 일상으로 끌어들여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탁월하다. 또한 죽음이라는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비탄의 윤리, 죽음의 사회학,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인 제사와 추모의 의미, 부활과 재생, 죽음 준비로 책의 내용이 진행되는데, 뒤로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의 몸을 입으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드는 미덕이 있다.

특히 뒷부분의 〈염려스러운 죽음 모습들〉을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 삶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차라리 고개를 돌리고 싶어진다. 죽을 줄 모르고 살다 죽는 죽음인 '불쌍한 죽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찌든 죽음맛이의 모습인 '불안한 죽음', 죽고 떠난 빈 자리가 지저분하게 남는 죽음인 '부끄러운 죽음', 죽음을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경멸하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경멸하고 싶은 죽음'. 이것은 곧 불쌍한 삶, 불안한 삶, 부끄러운 삶, 경멸하고 싶은 삶, 즉 '염려스러운 삶의 모습

들'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다. 저자는 염려스러운 죽음을 죽지 않는 일과 죽음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죽음맛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실천방법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완결할 것과 실현되지 않은 꿈에 너그러울 것 그리고 죽음을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이 한몸인 것을 아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좋은 죽음은 곧 좋은 삶이다. 그래서 저자는 삶을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적고 있다.

나는 솔직히 2002년 저자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을 계기로 죽음 공부에 빠져들었고 관련 독서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짧고 얇은 공부 경험이지만 이전보다 더 넓고 깊어진 저자의 생각을 책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당연한 것이 사람은 이미 저만큼 걸어가고 있는데, 책은 저 뒤에 남겨진 것을 다시 손질하고 수습해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상황이 제각기 다를 뿐,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죽음, 피할 수 없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꺼이 마주할 일이다. 일부러 달려나가 서둘러 맞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의연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지금 내 인생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내 인생의 계절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무엇인지 모르게 두렵고 어려워 오늘날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뿐이다. ******